韓國生藥報

本紙는 新聞倫理綱領 및 實踐要綱을 遵守합니다

發行人兼編輯人 裵東守
印刷人 金政坤
編輯局長 裵永斗

發行所
社團法人 韓國生藥協會
〈우편번호 131〉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제기동 1051
전화(967) 8133

(每月 初日發行)

〈協會指針〉
農民所得增大
生産輸出增大
國民保健向上

會長訓
1,最大의 봉사
1,最大의 협동
1,最大의 노력

(無料配布)

中央共販場
962—5895
967—8133 사무실

'86 第17次 定期總會

代議員91名參席 盛況裡終了

제기동 한약상가 빌딩에서

團合된 힘으로 活性化기틀 마련 會勢伸張에 最大의 力点을

3月31日 정기총회 광경

지난3月31日…傘下 代議員91名이 參席한 가운데 協會가 創立된後 열일곱번째의 定期總會를 開催한바 있다.

이날 總會는 豫定된 時間에 4~5名의 成員이 未達되어 우려를 자아내게 하였으나 時間이 흐를수록 지각代議員이 대거 參席하게 되어 成員을 훨씬 초과하게 하므로서 會議進行에 安定感을 주었고 그 어느 때보다도 조용하고 迅速한 議事를 마무리하게 하였다.

本然의 議案處理前에 其동안 協會會勢伸張에 寄與度가 높은 10餘名의 分所長에 對한 功勞牌 수여가 있은後 朴萬鍾會長은 제17차 總會에 즈음한 人事에서 昨年4月에 本會를 맡은後 무엇인가 會員들에게 報答할 길을 찾아 結實을 얻고자 努力하던중 벌써 오늘의 總會를 맞게 되어 歲月의 빠름을 더욱 痛感하는 바라고 말하고 通念的으로 봐서 17年이란 經歷을 가진 協會는 좀처럼 흔들리지 않은 기틀은 마련되었다고 봄으로 이제는 더욱더 團合해서 기능活性化에 힘써 會勢伸張에 拍車를 加해 나가자고 當付하였다.

그리고 朴會長은 今年度 中 推進해나갈 主要力點業務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는: 恒常 藥事團 東과 生産者團體間에 마찰 要素가 되어있는 韓藥과 生藥材取扱區分 및 限界에 對한 明確한 法的인 聯關解釋을 얻어내어 藥權保護에 進一步化할 수 있는 基盤을 마련토록 한다.

▲둘째는: 中央共販場에 圓滑한 所要資金을 調達去來荷主들에 對한 不滿要素를 最大限 배제토록 하여 明實相符한 公信力있는 共販場으로 活性化 시키도록 한다.

▲세째는: 解任되었거나 폐쇄조치된 者 또는 過去 本會에 關與한바 있던 者들 中에서 地方의 감독취약점을 利用한 名儀 남용및 盜用을 일삼고 있는 者들이 많다는 소문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非理者가 申告되던가 摘發되는데로 徹底히 척결토록하여 協會權益과 명예를 보호하는데 最善을 다한다.

▲네째는: 生産農家를 현혹케 하는 과장·과대弘報 活動을 強力히 統制하여 被害農家의 民願을 最大限으로 줄이고 信賴를 갖고 찾아드는 公益團體가 되도록 한다.

▲다섯째는: 自然生藥出荷量이 현격히 減少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本會의 기득권이라고 할수 있는 入山採取會員制度를 다시 부활 確立하여 우리나라 山野副存資源을 最大限 保續 生産토록 권장 生藥生産農家의 所得을 增大토록 하는데 寄與케 한다.

(관련記事 3面 參照)

이어서 今般 總會中 가장 主要한 議案의 하나가 되는 協會定款 改定案의 축조審議에 들어가 特別한 異議가 없이 다음과 같은 原案을 通過시켰다.

○협회기본임무기능에 生藥材의 出荷調節事業을 追加하는 안

○分事務所設置를 法的 등기하기 위한 措置로서 最少行政單位地域名稱을 表記하는 案

○分事務所長級 以上(任·免)에 限하여 理事會에서 심의 인준하는 案

○總會의 構成員을 理事와 分事務所長級으로서 구성하는 案

○總會를 3月中에 실시하는 案

○理事會 召集項을 追加 삽입하는 案

○會長후보 2人 이상일 경우의 選任方法을 追加삽입하는 案

○任員數 18名을 25名으로 增員하는 案등

其他 年例的인 總會議事로서 進行된 議案을 各各 다음과 같이 通過시켰다.

○85年度 事業實績報告…原案대로 理事會에 委任 통과

○85年度 收·支決算報告…協會監事報告 및 公認會計士의 分析에 따라 理事會에 委任처리 통과

○86年度 事業計劃書…축조심의하였으나 원안대로 통과

○86年度 收·支 豫算編成案…6천5백여만원의예산안을 축조심의 하였으나 원안대로 통과

이로써 約3時間半에 걸친 제17차 定期總會를 成功的으로 마무리지었다.

※이날 表彰牌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경기도支部長 오관수
▲강원도사무국장 김원철
▲충북도 보은군所長 황춘환
▲충남도당진군所長 최동진
▲전북도무주군所長 김종근
▲전남도구례군所長 정일영
▲경북도김천시所長 신현호
▲경남도의령군所長 성기수
▲부산시해운대구所長강차순
▲협회본부 사무국장 배영두

〈이상10명〉

※任員參席者 名單

△理事 朴萬鍾 會長△理事 朴贊永 副會長△理事金東均 副會長(제주도 지부장)△鄭尙鈺 專務△裵命哲 名譽會長△李五鎔 共販場長△宋寅兼 강원도 支部長△吳寬秀 경기도 支部長△李鍾喆 충북도支部長△文大珪 충남도支部長△李和翼 전북도支部長△安承官 경북도支部長△金正滿 경남도支部長△朴吉夫부산시支部長△鄭永埈대구시支部長

〈이상15名〉

農木産部 食糧節約·食生活개선 캠페인

애완동물 보호대책 추진

1、83년 10월부터 국제동물복지재단(IFAW)이 한국에서의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의 잔인한 도살행위와 이의 식용에 대한 항의가 있어서 그동안 수차에 걸쳐 관계부처 협조하에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2、최근 또 다시 동재단으로부터 잔인한 개도살 광경 및 판매 현장을 촬영한 사진과 비디오등을 제시하고 이의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각국에 분포되어있는 회원들을 통하여 88올림픽 거부 및 한국상품 불매운동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재항의가 있을 뿐 아니라, 국내입부 수출업체들로부터도 이에 대한 시정 대책 요청이 있었음.

3、이와같은 상황에 따라 정부 관계부처가 공동대처에 노력하여야 할뿐아니라 이는 근본적으로 국민의식 개선을 위한 범국민적 계도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산하조직을 통한 계도와 주변 계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

○식용을 위한 개 집단사육 및 도살금지 지도강화

·시도지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실시시시

▲홍보 강화

○관계부처에 범국민운동 전개 협조 요청

○한국전견등록협회를 애완동물보호사업을 상징할 수있는 명칭으로 개칭토록하여 민간 차원에서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추진

·국내 애완동물 보호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배포.

·개 보호대책 추진에 대한 국제동물복지 재단의 이해력 증진 촉구.

▲항의서한내용

농수산부 담당자귀하

본인은 IFAW(국제동물복지기금)의 설립자 Brian D. Davis 씨로부터 받은 서신을 보냅니다.

귀하는 그런 사실을이 설명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또한 귀국에서 곰포에 싸인체 죽을운명에 직면해있는 동물의 사진을 동봉하는바 이 또한 설명할 필요도 없을것입니다.

본인은 앞으로 한국으로부터는 어느것도 구매하지 않을 각오입니다. 특히 이즈음 진출하고 있는 포니 차동차를. 수천명의 사람들이 저와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을것으로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Davis의 조직은 대단히 크고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있기때문입니다.

Davis에 따르면 학대에 대한 토론을 위한 귀국내 9개 관계부처 대표의 회의를 개최 하였으나 아무도 참석하지 않으므로 서 실패하였읍니다. 그러나 그는 귀하로부터 전화를받았으며 귀하는 동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사람 같으며 그는 귀하가 약속한 사항에 대한 명세도 작성 했다고 합니다. 불쌍한 동물들에게 잔악한 학대 행위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人事發令

〈免〉

▲강원도 원주시 사무소장=오주석 86년4월1일부
▲충남도 논산군 사무소장=이재광 86년4월1일부
▲강원도 홍천군 사무소장=한수희 86년4월9일부
▲전남도 광주시 사무소장=김행중 86년4월9일부
▲전북도 남원시 사무소장=김종섭 86년4월9일부
▲충북도 공판장장=이승백 86년4월9일부
▲충북도 단양군 사무소장=장경철 86년4월22일부
▲충남도 부여군 사무소장=신현진 86년4월22일부

이상 8名 해임.

社團法人 韓國生藥協會

祝 發展

理事 朴萬鍾 會長
〃 金東均 副會長
〃 朴贊永 副會長
〃 鄭尙鈺 專務
〃 裵命哲
〃 鄭東五
〃 李鍾燁
〃 吳寬秀 경기도 支部長
〃 宋寅兼 강원도
〃 李鍾喆 충북도
〃 崔鍾大 전남도
〃 李和翼 전북도
〃 安承官 경북도
〃 金正滿 경남도
〃 文大珪 충남도
〃 朴吉夫 부산직할시
〃 鄭永埈 대구직할시
〃 李玉鎔 中央共販場長

1986년 4월 15일